개학 목포 초등校 '찜통교실'

교실 10곳중 6곳 냉난방 시설 없어
설치 학교도 전기료 부담 가동 못해

목포지역 초등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6곳에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무더위에 시달리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억 원을 들여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학교에서도 대부분 월 평균 100만 원대에 이르는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3일 목포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28개 초등학교 가운데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곳은 9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 수로 계산하면 모두 1천118개 교실 가운데 38%인 424개 교실에만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머지 62%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여름 무더위를 고스란히 몸으로 견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학교들도 대부분 값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학교가 교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각 2억5천만~3억5천만 원 씩을 부담해 냉난방 시설을 갖춰놓았지만 실제 이들 시설을 모두 가동하려면 한 달 전기료가 평소보다 2.5배가량 많은 100만 원대에 육박, 일선 학교에서 사실상 냉난방시설을 가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또 냉난방 시설 가동에 필요한 고압 변압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월 20만 원대의 전기안전관리비도 추가 부담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 재정형편상 교육청의 추가지원 없이는 수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냉난방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는 전기료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무더위가 개학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시설 가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초가을 밤 '은빛 추억' 만드세요

9~10일 목포 갈치축제
선상 낚시대회 등 행사

'제4회 목포사랑 은빛갈치 축제'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갈치 낚시대회, 갈치 무료 시식회를 비롯, 목포해경 해상구조시범, 7080 추억의 콘서트, 전국 해변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가족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갈치 낚시대회는 9일 오후 6시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총상금 1천만원을 걸고 선상낚시와 갯바위낚시로 나눠 열린다.

갈치 낚시대회 참가비는 선상 1인당 5만원, 갯바위 팀당 2만원이며, 참가자는 선상 500명, 갯바위 20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낚시 장비와 미끼, 기념품과 도시락이 제공된다. 문의(061-280-1071,270-1521)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공직자 '기업 혁신' 체험

5~7급 직원 기업체 프로그램 참여 특별교육

목포시가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우수기업체를 방문하고 혁신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은 우수 기업의 혁신현장을 공직사회에 접목하여 모든 공직자가 혁신매니아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먼저 5~6급 공직자는 오는 6일부터 6회에 걸쳐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전국혁신우수기업의 성장과정과 윤리경영, 혁신교육시스템, 자체 혁신평가방법 등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현장내의 우수한 사례들을 직접 견학하고 혁신과정을 체험한다. 또한 혁신우수 공공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하여 혁신 마인드를 벤치마킹하게 된다.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특별교육은 국내 우수기업체 연수원에 입소하여 기업체 직원들과 함께 혁신프로그램에 참여,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체득하게 된다.

앞으로, 목포시는 '새롭게, 다르게, 바르게'라는 혁신슬로건 아래 전 부서가 6급 '혁신짱'을 선발하여 매주 부서별 혁신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광주·전남혁신대회

목포시 우수상

목포시가 지난달 31일 열린 광주·전남지역혁신대회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목포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혁신사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빛의 도시'의 브랜드화를 위해 유달산을 비롯한 주요 역사문화경관과 원도심 루미나리에 거리 및 하당 평화광장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 야간경관 관광자원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서남해안 오징어 풍년 최근 전남 신안, 진도 등 서남해안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동해안 오징어 배들이 몰려 오징어를 잡느라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홍도 초고속선 신규허가 내줘야"

광주지법, 목포해양청 행정소송 패소 판결

업체간 과다 경쟁 등을 이유로 목포~홍도간 초고속선 신규운항허가를 불허했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20일 신안군 투자사인 하이제트훼리(주)의 목포~홍도간 신규 면허신청에 대해 평균 탑재 수익산출결과 35%에 못 미쳐 수요적합기준에 미달하고 과다 경쟁이 우려된다며 불허 통보했다.

목포해수청은 또 기항지 계류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발생 등 승객의 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꼽았다.

이에대해 하이제트훼리는 해양수산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6월1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1일 판결에서 "사업자간 과다경쟁이나 승객 안전 등을 이유로 신규면허를 불허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하이제트훼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안군은 "그동안 군민들이 노선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목포해수청이 항소를 포기해 하루빨리 도서 운항 노선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목포~홍도간 신규 초고속선 운항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새얼굴

"감성·특화교육으로 희망 만들 터"

강춘산 목포교육장

"창의성교육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목포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임 강춘산(58) 목포교육장은 "목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희망과 믿음을 안겨드리는 '감성교육, 특화전략교육'으로 목포교육의 일류화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 비금 출신인 강교육장은 목포교육대학 졸업 후 교단에 몸담아 강진교육청과 신안교육청 교육과장, 신안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취미는 등산.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지역 단신/

무안군 '황토골 자치마당'

무안군은 지난달 31일 승달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과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제 52회 황토골 자치마당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주)솔로몬기업전략연구소 김동신 소장이 강사로 나와 '발상의 전환을 통한 농업의 생존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입출항 신고 무인시스템 구축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경찰청에서 입·출항 신고를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율적 출입항 신고 체제인 '선박 프리패스(Free Pass)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선들은 항포구 입·출항시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이란 선박별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GPS로 선박의 이동사항 및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위성을 통해 수신되는 선박위치 등의 정보는 해양경찰서와 파출소, 출장소, 경비함정 등에서 공유하게 된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신안군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

신안군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태평양홀에서 개최된 '제3회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했다.

신안군은 이번 행사에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흑산도, 홍도와 가거도를 비롯해 세미누드 촬영지인 도초 우이도, 섬 갯벌올림픽을 개최한 증도 우전해수욕장을 비롯한 엘도라도 리조트 등 갯벌생태공원과 다도해의 해수욕장을 널리 알려 관광신안을 한 차원 높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신안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쌀, 천일염, 백년초, 젓갈, 함초 등 특산품을 전시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군자치단체와 관광업계 등 전국에서 500여 단체가 참가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녹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